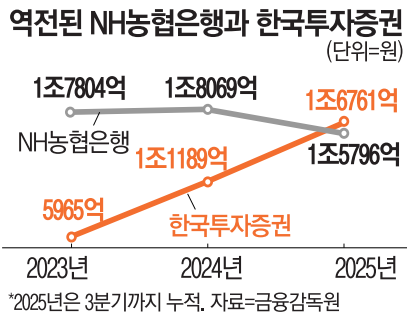


돈 더 잘버는 증권사 한투證, 농협銀 제쳐

올 3분기까지 순익 1.6조
사실상 5대 은행 첫 추월
5대證 10년 순익 증가율
시중銀 2배 '무서운 성장'



은행보다 증권사가 돈을 더 잘 버는 시대가 시작됐다. 국내 증권업계 1위인 한국투자증권의 올해 3분기 누적 순이익은 5대 시중은행 가운데 한 곳인 NH농협은행의 실적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A10면**

증권사 순이익이 주요 은행을 넘어선 것은 과거 은행 구조조정 등 이례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이번이 사실상 처음이다. 견고했던 은행 중심의 대한민국 금융 생태계에서 증권업이 새로운 강자로 부상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일 매일경제가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5대 대형 증권사(한투·미래·삼성·키움·메리츠)의 최근 10년간 실적을 분석한 결과, 5대 은행의 순이익 합산액은 2016년 연간 5조6735억원에서 지난해 15조696억원으로 2.6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5대 증권사의 순이익은

8606억원에서 4조4741억원으로 5.2배 증가했다. 증권사들의 순이익 증가 속도가 은행보다 두 배로 빠른 셈이다.

특히 올해 증권사들의 실적 성장이 더욱 두드러진다. 3분기 말 기준 5대 증권사의 순익 합계액은 4조9876억원으로 이미 지난해 연간 순익(4조4741억원)을 넘어섰다. 한국투자증권의 3분기 누적 순이익은 1조6761억원으로, NH농협은행(1조5796억원)을 제쳤다. 한국투자증권은 올해 증권사 가운데 처음으로 연간 순이익 2조원을 바라보고 있다. 증권업계 2위인 미래에셋증권도 3분기 누적 순이익 1조799억원을 기록했다. 시장에서는 앞으로 금융업의 주도권이 은행에서 증권사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최재원 기자**

10·15 약발 끝... 서울 집값 상승폭 4주만에 확대 A23면

‘패트 충돌’ 나경원·송언석 벌금형

1심선고...의원직 상실은 면해

일명 ‘패스트트랙 사건’ 재판에서 국민의힘(옛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1심에서 모두 벌금형을 받으며 의원직 상실은 면했다. **관련기사 A6면**
2019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등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의안 접수를 방해한 혐의로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대거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다.

재판부는 당시 국회 의사 결정에 부당한 측면이 있었다는 점과 사건 이후 치러진 선거를 통해 국민의 정치적 판결을 받았다는 점을 참작해 양형했다고 설명했다.

2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 옛 자유한국당 관계자 26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다.

사건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에게는 특수공무집행방해로 벌금 2000만원, 국회법 위반으로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는 벌금 총 1150만원, 사건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였던 황 전 총리에게는 벌금 총 1900만원이 선고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국회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 이상이 선고된 경우 의원직이 상실된다. 기소된 국민의힘 의원 6명은 국회법 위반 혐의에서 최대 4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기 때문에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김승현·최희석 기자**

AI 거품론 제압한 ‘갯비디아’

엔비디아 8~10월 매출 62% 증가한 83조원 ‘신기록’
전문가 85% “AI 고점 아냐”... 코스피 4000선 탈환

1.3달러로 역시 월가가 예상한 1.25달러를 넘어섰다. 특히 글로벌 빅테크의 신설 경쟁이 치열한 데이터센터 관련 매출이 66% 급증했다. 전체 매출의 90%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품귀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첨단 AI 칩 ‘블랙웰’이 실적 상승을 견인했다.

엔비디아는 향후 실적에 대해서도 시장보다 더 높은 전망치를 내놴다. 엔비디아는 4분기에 시장 예상(620억달러)보다 높은 650억달러의

매출을 자신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블랙웰 판매량은 차트에 표시하기 어려울 정도로 높다”며 “클라우드용 그래픽처리장치(GPU)는 사실상 품절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AI 생태계는 폭발적으로 확장하고 있다”며 “AI는 모든 산업, 모든 국가에서 동시에 채택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엔비디아 주가는 실적 발표 후 시간 외 거래에서 5% 이상 급등하며 196달러 선을 넘어

섰다. 20일 코스피는 외국인과 개인이 1조4000억원가량을 순매수하며 전날보다 1.92%(75.34포인트) 상승한 4004.85에 장을 마감했다. 일본 닛케이지수(2.65%)와 대만 자취엔지수(3.18%) 등 아시아 증시도 간만에 큰 폭으로 동반 상승했다.

한편 매일경제가 펀드매니저와 애널리스트 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5%가 현재 증시 수준을 ‘AI 버블’로 보기는 힘들다고 답했다. AI가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며 실적 증가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실리코밸리 원호섭 특파원·서울 김재림 기자



사우디투자포럼서 활짝 웃는 트럼프·젠슨 황·머스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가운데)이 19일(현지시간) 워싱턴 존 F 케네디 공연예술센터에서 열린 ‘사우디아라비아 투자 포럼’에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왼쪽),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와 대화하고 있다. **관련기사 A3면** **AP연합뉴스**

李대통령 “북핵 고도화 방치해선 안돼”

2박3일간 이집트 순방 돌입
현지언론에 ‘비핵화’ 기고문

이집트를 공식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남북 대화가 단절되고, 북핵 능력이 고도화되고 있는 현 상황을 방치해선 안 된다”며 “실용적·단계적 해법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A6면**

이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북한이 최근 한미정상회담의 결과물인 조인된 ‘북한 비핵화’ 문구에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나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이집트 유력 언론인 알아흐람에 기고한 글에서 “가능한 분야부터 남북 간 교류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북한의) 국제사회에서의 관계 정상화 노력도 적극 지원하겠다”며 북한 비핵화 의지를 재차 밝

혔다. 이 대통령의 언론 기고는 올해로 수교 30주년을 맞은 이집트를 지난 19일부터 2박3일간 공식 방문한 것을 계기로 이뤄졌다. 이 대통령이 ‘한국과 이집트: 함께한 30년과 함께 만들어 갈 미래’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북한 비핵화 구상을 밝힌 것은 한국과 이집트가 각각 역대 지정학적 긴장 상황 가운데서 평화를 위해 노력한 공통점이 있다고 언급한 대목에서 나왔다. **카이로 오수현 기자**

해체공사 사고 74%가 계획서 의무 없는 현장

제2 울산화력 참사 우려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타워를 해체하며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올해 사고가 발생했던 해체 공사장 대부분이 울산 현장처럼 해체계획서 제출 의무가 없는 곳이었다는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기사 A5면**

20일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발생한 토목·건축 공사 종류의 해체·철거 공사 사고 175건 가운데 74%인 130건이 해체계획서 제출 의무가 없는 ‘해체계획서 비대상 현장’에서 발생했다.

울산화력발전소 사고가 발생하기 이전부터 이미 해체계획서가 없는 현장에서는 수많은 사고가 일어나고 있었다는 의미다.

치명적인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고 현장에서도 유사한 경향이 관측됐다. 같은 기간 전체 토목·건축 분야 해체·철거 공사 사망사고는 16건이었는데, 이 중 절반인 8건이 해체계획서 비대상 현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7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울산화력 발전소 해체 현장 역시 해체계획서가 작성됐지만 관할 자치단체에는 제출되지 않았다. 현행 건축물관리법은 해체 절차에 관한 제도를 ‘건축물’에만 규정하고 있어 ‘공작물’에 해당하는 울산 현장은 관리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박재영 기자**

Money&riches B1~8면

ASK 2025
Airport Show Korea

2025 대한민국 미래공항엑스포

Airport Show Korea 2025 **DAEGU**

11.26수-28금 **EXCO** 동관 4층

행사구성

전시회 Airside, Landside, 공항 홍보, Airline, 공항 서비스 등
부대행사 개막행사, 비즈니스 상담회 등
컨퍼런스

일자	Conference 1	Conference 2	Conference 3	Conference 4	Conference 5	Conference 6
11.26 (수)	한국시스템 엔지니어링학회 추계학술대회	AVIATION WEEK 세미나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세미나			
11.27 (목)	한국물류과학기술학회 추계학술대회	국토교통부 항공교통본부 세미나	한국시스템 엔지니어링학회 추계학술대회	한국시스템 엔지니어링학회 추계학술대회	한국시스템 엔지니어링학회 추계학술대회	한국시스템 엔지니어링학회 추계학술대회
11.28 (금)	한국물류과학기술학회 추계학술대회	한국물류과학기술학회 추계학술대회	한국물류과학기술학회 추계학술대회	한국물류과학기술학회 추계학술대회	한국물류과학기술학회 추계학술대회	한국물류과학기술학회 추계학술대회

* 상기 일정은 주최측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최 | 대구광역시

주관 | 한국공항공사 informamarkets exco 대구도시개발공사

미디어파트너 | AVIATION WEEK NETWORK

행사 문의
053) 601-5444
www.airportshow.kr